

## 경북동해안지역 경제일지

(2023년 7월 중)

### 7. 6. ▶ 영덕군, '풍력에너지 활성화 컨트롤타워' 종합지원센터 착공

- 총 사업비 190억원이 투입될 영덕 '풍력에너지산업 활성화 컨트롤타워'가 착공되어 건축연면적 8300㎡(지하1층, 지상4층) 규모로 내년 6월 준공 예정
- 2018년 6월 특별법 시행으로 특화된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연구개발지원 등 기술혁신을 통해 지역에너지산업 활성화 목적으로 지정된 동 지원센터는 지역 특화기업 육성 및 지원, 기술개발 및 인재양성 등 풍력산업 핵심거점 공간으로 자리잡아 지역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

### 7. 14. ▶ 포항시, K-배터리 중심도시로 성장

- 이차전지 분야에 총 5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달성한 포항시는 에코프로·포스코퓨처엠 등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연간 양극재 100만톤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
- 이는 세계 양극재 수요량 605만톤의 16.5%를 차지하는 규모로서 양극재 이외 이차전지 소재의 생산량도 연간 120만톤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
- 이차전지산업 기업과 전후방산업 연계기업간 협력 강화로 1,000여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

### 7. 31. ► 포스코퓨처엠-한동대, 배터리학과 전문인력 양성 산학협력

- 포스코퓨처엠은 한동대와 ‘이차전지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’을 체결
  - 한동대는 배터리 산업 성장에 맞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 개선을 준비하고 있으며,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·음극재를 동시에 양산하고 있는 포스코퓨처엠이 커리큘럼 구성 및 연구설비 구축에 조언할 계획
  - 전공 학생들은 포스코퓨처엠 주요 사업장 방문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되며 취업 연계 활동도 이루어질 전망